

#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 직접투자 결정요인 연구

조헌수 (덕평에스엘씨(주) 고문)\*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시 대북투자 경험이 없는 베트남 투자업체 중 대북투자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북투자 경험이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비교 분석하여 해외기업의 개성공단 및 북한 경제특구 유치로 U턴시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남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개성공단 및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부분은 값싼 노동력 활용, 저렴한 공장입지, 현지시장 판매·개척,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등의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이론상 현지시장 판매 및 확대를 위한 시장추구형 투자(Market seekers)와 인건비 등 생산요소가격 차이를 활용한 생산효율추구형 투자로(Production-efficiency seekers) 나눌수 있는데 이는 최근 나이키, Apple, 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대북 경제 체제조치가 완화, 해제되더라도 베트남 투자기업의 대북 투자의향은 12.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북핵 Issue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정치적 Risk로 인한 북한 경제특구 폐쇄가능성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 또한 경제특구 폐쇄시 국가의 손실배상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가칭 "남북경협진흥공사"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대북지원기관의 중복업무를 방지하고 Onestop fullservice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섬유,봉제,신발과 같은 영세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위한 진출 초기에는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금융기관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핵심주제어: 해외직접투자(FDI), 투자결정요인, 개성공단, 베트남, 회귀분석

## I. 서론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추세에 발맞추어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라 칭한다)는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조차도 경쟁력확보를 위한 FDI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제품생산, 마케팅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영역까지도 기업들은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의 경계선을 넘다 들고 있다. 국내시장이 협소한 한국기업들에게 FDI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유력한 생존전략이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 환경·산업안전 분야에서의 각종 기업규제 강화 등으로 타격받는 섬유, 봉제, 피혁, 신발 등 노동 집약적인 한국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는 좀 더 나은 여건을 찾아 FDI 입지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중국은 가장 선호하는 투자지역이었으나, 인건비 상승, 미·중 무역전쟁 격화등에 따라 값싸고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개성공단 역시 2016년 이후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지리적 근접성 및 노동력의 품질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생산시장

으로서의 전망이 높은 곳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 직접투자에 있어서 진출동기 및 업종, 현지 투자활동 지역에 있어서의 장애요인 및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우위 요인, 투자후의 만족도와 성과 등을 설문조사와 더불어 실증 분석하여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시 대북투자 경험이 없는 베트남 투자업체 중 대북투자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대북투자 경험이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비교 분석하여 해외기업의 개성공단 및 북한 경제특구 유치로 U턴시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남북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국제통화기금(IMF)은 FDI를 한 영역내의 경제주체가 지속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나라내 경제주체에 하는 국제투자(IMF, 2008)라고 정의했다. 즉 FDI는 기업이 자국의 생산요소인 자본, 생산기술, 경영시스템 등을 외국으로 이전하고 투자대상국의 토지, 노동 등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이며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

\* 주저자, 덕평에스엘씨(주), 고문 hschol2700@naver.com  
· 투고일: 2021-07-12 · 게재확정일: 2021-08-2

하고 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 형태를 유지하거나 사업용 실물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일컫는다. 대개의 FDI는 제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WTO 체제 출범이후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선진국의 대 개발도상국 위주로 규모가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기술제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선진국 대 선진국으로 해외투자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국제적인 자본은 수익률이 낮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국가로 이동하여 FDI가 발생한다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이론(Macdougall, 1960, Kemp, 1964)과 기업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을 해외로 분산투자한 결과로 FDI 활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포트폴리오 이론이(Rugman, 1981) 있으며,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는 우수한 기술, 제품차별화, 자본조달의 우위성, 특허 및 마케팅 기술 등, 기업 특유의 우위 요소에 의한 독점적 우위이론(Monopolistic advantage theory),(Kindlerberger, 1969) 현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업 내부거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내부화 이론(Internalization theory), 경쟁관계에 있는 한 기업이 신제품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시도하면 시장 상실을 우려한 경쟁기업들이 이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대응하는 과점이론(Oligopoly theory)이 있다(Knickerbocker, 1973). 마지막으로 Dunning(1980)의 절충이론으로 기업의 해외투자 동기를 분석하면서 OLI 체계를 제시하였다. 즉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외국기업으로서 불리함을 극복하고 현지에서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기업 특유의 독점적 우위(Ownership-specific advantage), 국내보다 현지국에 진출할 경우 비용이나 시장의 접근에 우위를 누릴수 있는 생산입지상의 우위(Location-specific advantage), 그리고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를 외부시장에 판매하는 독점적 거래를 하는 것보다 내부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것이 유리한 내부화 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 등 세가지 요소를 통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Dunning(1980)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특유 내부화 우위가 외부시장 판매보다 더 유리하면, 기업이 라이선싱 생산방식보다는 수출이나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하여 자본, 기술, 경영방법을 해외로 이전하고 현지의 생산요소와 결합 할 것이다. 또한, 세가지 요소가 모두 구비될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고, 만일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가 부족하면 수출이 해외직접투자보다 더 유리 할 것이다. 더욱이 기업이 특유우위가 있지만 내부화 우위와 입지 우위가 없다면 기업의 가장 유리한 선택은 수출이 아니라 라이선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FDI의 결정요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기존시장과 판매망을 유지하면서 제3국의 새로운 수출시장을 만들기 위해 현지에서 진출하여 생산을 하는 시장지향형(Market seekers)과 생산성에 비해 생산요소 가격이 저렴한 지역을 찾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출하는 생산효율지향형(Production-efficiency seekers)으로 한국의 섬유, 봉제, 신발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이러한 유형의 해외직접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 III.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대한 투자환경과 투자현황

#### 3.1 개성공단 투자환경과 투자현황

북한 경제는 1990년대 들어 소련의 붕괴와 1994년 김일성 사망, 북핵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악화로 대중국 무역 정체, 잇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1990년과 1998년 사이에 약 30% 정도 위축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실질 GDP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1999년부터 서서히 회복되었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가 취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일부 침체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연간 GDP 성장률은 평균 1.4%로 추정되며, 특히 2016년 경제는 광업과 농업의 호조에 힘입어 1999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거의 4% 성장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북핵에 대한 집착은 북한경제를 다시 악화시켰는데,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요 교역품목까지 대북제재를 확대시켰으며 북한경제는 다시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결과 북한 실질 GDP는 2017년 3.5%, 2018년 4.1% 감소했던 것으로 추정되며(한국은행, 2020) 대외교역 규모는 US\$32.4억달러(수출US\$2.8억 달러, 수입US\$29.7억달러)로 만성적인 달러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표 1> 북한 주요 경제지표

(단위: US \$억)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명목GNI	305.0	313.4	323.9	326.2	305.1
1인당 GNI(달러)	1,230.9	1,258.9	1,295.0	1,298.1	1,208.2
경제성장률(%)	-1.1	3.9	-3.5	-4.1	0.4

자료: 한국은행(2020)

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는 남북경협편람(서울특별시, 2020)에 따르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한 남북한 최초의 합작 공단으로 2000.6.15.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시 채택한 남북공동선언 3항(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에 의거 남북의 경제적 상호 이익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평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2003년 6월에 착공해 2004년에 공단개발 1단계 100만평 가운데 28,000평을 시범단지로 조성, 15개기업이 계약하고 입주를 시작해 2004.12월에 최초로 통일남비를 생산 출하했다. 이후 2~3단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3단계 사업은 착공

하지도 못한채, 2016년 중단되고 말았다. 2015년말 기준 개발 면적은 계획대비 5%, 업체수 6% 내외에 그쳤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2016.2월 등록기준으로 125개 기업, 가동기준으로 123개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기업활동을 하였다.

1차단지가 완공된 2005.3월 이후 2015.12월말까지 누적 생산액은 US 32.3억달러였다. 21015년 월 평균 생산액은 US 4,687만달러 였고, 이 해 처음으로 연간 생산액 US 5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입주기업의 업종은 섬유·봉제가 51.2%로 가장 많았으며, 기계금속 19.2%, 전기·전자 10.4%, 가죽·신발 7.2%, 화학플라스틱 7.2%,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유·봉제 업종이 많은 이유는 1990년 이후 국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생산공장을 해외로 빠르게 이전하던 시기였다. 대표적으로 1990년부터 섬유·봉제 업종이 중국, 베트남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했는데 해외 이전 대체지로 개성공단 입주를 선택한 결과 섬유·봉제 업종이 개성공단에 주 업종이 된 것이다. 개성공단 근로자 수는 2016.2월 개성공단 폐쇄 전 53,118명이며 평균 연령은 39세, 남녀 비율은 32.2% 대 67.8%로 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표 2> 개성공업지구 투자현황

(단위 :US 천달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누계 (2004-2015)
투자금액	3,385	3,606	3,595	3,715	4,019	39,036
(섬유·봉제)	2,947	3,171	3,153	3,349	3,671	16,291

자료: (서울특별시, 2020)

### 3.2 베트남 투자환경과 투자현황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Doi Moi:쇄신)정책을 도입하여 경제개혁을 추진한 이후,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이후 Post China의 유망지로 부각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2019년 대미 무역흑자액은 US\$469.8억달러로 반사이익 수혜를 크게 누리고 있으며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른 무역수지 호조와 물가 안정 등에 힘입어 5%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1.1월 시행한 PPP법(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은 베트남 Infra건설(Kotra, 2021)에 투자(2030년까지 US\$2,000억달러)하는 외국기업에게 위험분담제도(매출이 75%이하 시 손실금의 50%보상), 인센티브(매출이 125%이상 시 수익의 50%배당), 외화태환(수익의 30%)을 허용함으로써 한국기업들에게는 민관이 힘을 합쳐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표 3>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명목GDP (US\$억달러)	1,932	2,053	2,238	2,449	2,538
1인당 명목GDP(US\$)	-	2,164	2,353	2,538	2,715
실질GDP성장률(%)	6.7	6.2	6.8	7.1	7.0
실업률(%)	2.31	2.30	2.24	2.20	1.98
환율 (동/US 달러화)	21,689	21,935	22,451	22,606	23,155
수출(US\$억 달러)	1,620	1,766	2,140	2,435	2,647
수입(US\$억 달러)	1,656	1,748	2,130	2,367	2,535
외환보유고	247	719	719	575	800

자료: 베트남 통계청,(2019) KOTRA(2019a)

외국인 직접투자는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에 따른 제조공장 섀다운 발생 등으로 중국을 대체할 공급선 및 생산기지를 찾고 있는 나이키, Amazon 등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체인이 변화함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외국인 직접투자가 베트남으로 몰릴 듯이 들어오면서 2018년에는 US 380억달러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승인액을 기록하였다. 한국 기업도 그동안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섬유·의류, 신발, 피혁 등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에서 삼성전자(휴대폰/하노이, 가전제품/호치민), LG전자 등 대기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주력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으며 대 베트남 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순위

(단위: US\$백만, 건)

순위	국가명	2015	2016	2017	2018	2019.6
1	한국	6,983.2 (1,029)	6,895.8 (1,263)	7,801.8 (1,339)	5,928.5 (1,446)	1,766.2 (698)
2	일본	1,803.4 (475)	2,509.8 (574)	8,718.6 (601)	7,989.3 (630)	1,572.7 (327)
3	싱가포르	2,082.5 (204)	2,123.3 (309)	4,939.0 (271)	3,269.8 (295)	1,265.0 (163)
4	대만	1,468.2 (187)	1,351.6 (222)	1,162.6 (206)	679.5 (204)	515.3 (110)
5	홍콩	1,148.1 (150)	1,626.1 (228)	1,412.9 (232)	1,936.9 (242)	1,274.0 (181)
합계		24,115 (3,038)	23,379.7 (3,862)	30,783.1 (3,975)	25,572.8 (42,215)	10,347.1 (2,351)

자료: KOTRA (2019b), 베트남 통계청(2019), 순위는 누계기준

### 3.3 개성공단 및 베트남 직접투자시 문제점 및 위험요소

최근 중소기업의 FDI가 급증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 진출기업이 한국과는 상이한 시장환경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개성공단 및 베트남 시장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를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유의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베트남 시장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를 살펴보면 첫째로, 관료주의(부정부패) 문제이다. 외국인 투자시 법적, 제도적으로는 투자허가 기간이 2~3개월이나 실제로는 약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투자허가와 토지사용 계약, 공장 건축허가 등의 업무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급행료가 들기도 하고 실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동반하여 예상보다 인허가 등 초기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대체제로 각광을 받으면서 공장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둘째로, 열악한 인프라이다. 베트남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사회간접자본(SOC) 미비로 기본적인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항만, 공항, 철도는 낙후되어 있고 특히, 전력 및 운송부문의 시설이 열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력공급의 경우 전국적인 전력망이 형성되어 있으나 송·배전망 부족으로 전력손실 및 정전이 가끔 일어나고 있으며 운송부문은 컨테이너 운송 및 통관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장진, 2019). 셋째로, 불균형적인 발전(양극화 현상)이다. 성장지역인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 대도시에만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간 빈부격차가 매우 크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생산직 근로자 구하기가 어려워 공장 가동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농어촌 주민들과 도시 빈민층은 치솟는 물가로 삶의 질이 악화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 베트남 정부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장려 분야를 농촌지역에 5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로, 법, 제도의 문제(정책의 잦은 변화)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개혁·개방을 외치면서도 아직 법률체계는 정비단계에 있다.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많으며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섯째, 중간관리직과 엔지니어, 숙련노동자 부족 문제이다. 중간관리직의 구인난이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간 폐쇄경제로 비숙련 단순 노동자가 생산 연령 인구의 70~80%를 차지하는 등 고급 노동자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여섯째, 임금상승 문제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정 최저 임금은 1999년 이후 마련되었으나 최근 경제성장(연 6~7%)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임금상승이 불가피하

로 적절한 원가절감을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문해진, 2008).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Amazon, 나이키, Apple, Microsoft,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공장 이전으로 섬유,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에 투자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경우 막대한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본격화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투자시 문제점 및 위험요소를 살펴보면 첫째로,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시장경제 도입으로 체제 이완 부작용을 우려한 북한 최고지도층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과도하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간섭이 심하다는 것이다. 당초 개성공단도 북한정부는 토지와 인력만 제공하고 외화벌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려고 했지 경제특구 개발을 통한 시장경제의 학습 및 기업운영 노하우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경험을 살려 북한 경제개발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둘째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경영자율권 보장이 시급한 과제이다. 인력 총원, 임금 결정, 생산성 향상 등 외국인 투자자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예측가능한 시스템 경영을 하려는데 반해 북한 정부관리의 임금결정 간섭 등 과도한 경영간섭은 경영자율권 침해로 투자자의 반감을 사게 되고 결국은 신뢰를 잃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철수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셋째로, 관료주의(부정부패) 문제이다. 외국인 투자시 법적, 제도적으로는 투자허가 기간이 2~3개월이나 실제로는 최고지도층의 결심이 없으면 기한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맞닥거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투자허가와 토지사용 계약, 공장 건축허가 등의 업무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법, 제도의 자의적 해석으로 급행료가 들기도 하는 등 실제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동반하여 예상보다 인허가 등 초기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넷째로, 열악한 인프라이다.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사회간접자본(SOC)의 미비로 기본적인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항만, 공항, 철도는 낙후되어 있고 특히, 전력 및 운송부문의 시설이 열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섯째로, 법, 제도의 문제(정책의 잦은 변화)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개혁·개방을 외치면서도 아직 법률체계는 정비단계에 있다.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많으며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성과 글로벌 기준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Risk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중국 경우 40년간 경제특구 및 개발구에서 정치적 Issue로 외국인 투자공단이 폐쇄된 경험은 전혀 없으며, 베트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의 경우 천안함 피격사건, 한·미 연합훈련(2013년 북한 근로자 철수로 가동중단), 북핵·미사일 시험발사 등 정치적 이슈로 2016.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정치적 Risk가 여전히 존재하며, 폐쇄시 국가의 손실배상 조치가 흡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간관리직과

엔지니어, 숙련노동자 부족 문제이다. 장기간 폐쇄경제로 섬유, 봉제, 신발 등 비숙련 단순 노동자가 생산 연령 인구의 70~80%를 차지하는 등 고급 노동자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는 앞에 지적한 북한 경제특구의 문제점과 위험요소를 해결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실제로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앞서 지적한 문제점 및 위험요소를 감안 투자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서대훈, 2015).

#### IV. 개성공단 및 베트남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

##### 4.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투자결정요인과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업체(125개, 2016.2월기준)와 베트남 투자업체(5,451개업체, 2017.12월기준) 중 팩스와 인터넷 e-메일에 응답해온 102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투자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규모, 투자금액, 평균 임금, 업종, 저렴한 노동력, 현지시장 판매 및 개척, 향후 베트남(개성공단) 시장의 잠재력,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활용, 저렴한 입지비용, 저렴한 원부자재 확보, 지리적 근접성 등을 조사하였다. 수집한 표본 설문조사 항목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의 하위 요인과 종속변수간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Ver.23.0 과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 4.2 개성공단 및 베트남 직접투자 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 기업의 경영실태는 다음과 같다.

###### 4.2.1 투자결정요인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은 저렴한 노동력 확보가 75.0%, 5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2순위로 개성공단은 지리적 근접성이 15.0%,

베트남은 현지시장 판매, 개척이 29.6%로 모두 저렴한 노동력 확보에 기대를 하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투자결정요인

투자결정요인	베트남		개성공단	
	업체수	백분율(%)	업체수	백분율(%)
저렴한 노동력 확보	44	54.3	15	75.0
현지시장 판매, 개척	24	29.6	-	-
향후 베트남개성공단 시장의 잠재력	8	9.9	-	-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로 활용	1	1.2	1	5.0
저렴한 입지비용	-	-	1	5.0
저렴한 원부자재 확보	1	1.2	-	-
지리적 근접성	1	1.2	3	15.0
기타(여행, 부동산개발,서비스업 등)	2	2.5	-	-

###### 4.2.2 투자업종 및 투자금액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투자업종은 섬유 및 봉제의류와 전기, 전자부품 및 제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 업종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투자업종

투자업종	베트남		개성공단	
	업체수	백분율(%)	업체수	백분율(%)
섬유 및 봉제의류	13	16.0	12	60.0
화학, 플라스틱 제품	14	17.3	2	10.0
신발, 가죽제품	1	1.2	-	-
전기, 전자부품 및 제품	24	29.6	3	15.0
기계, 조립금속, 자동차 부품	15	18.5	1	5.0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건축자재	7	8.6	1	5.0
식품 및 수산물 가공업	1	1.2	1	5.0
기타(여행, 부동산 개발, 서비스업 등)	6	7.4	-	-

개성공단 및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투자금액은 US 101만불-500만불 이하가 각각 30.0%, 45.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투자금액

투자금액	베트남		개성공단	
	업체수	백분율(%)	업체수	백분율(%)
US 50만불 이하	8	9.9	1	5.0
51만불-100만불 이하	9	11.1	5	25.0
101만불-500만불 이하	37	45.7	6	30.0
501만불-1,000만불 이하	12	14.8	5	25.0
1,000만불 초과	15	18.5	3	15.0

### 4.2.3 고용인원 및 평균임금

업체당 고용인원은 현지법인 종사자수로 베트남 진출업체의 경우 50인이하 영세 중소기업이 29.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개성공단인 경우에는 301인~1,000인이하가 10개업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이중 301인~500인 이하가 8개업체, 40%로 대다수를 차지함)

<표 8> 고용인원

고용 인원	베트남		개성공단	
	업체수	백분율(%)	업체수	백분율(%)
50인 이하	24	29.6	3	15.0
51인-100인 이하	14	17.3	1	5.0
101인-300인 이하	18	22.2	6	30.0
301인-1,000인 이하	9	11.1	10	50.0
1,000인 초과	16	19.8	-	-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월 평균임금은 US 300불이하가 16개업체, 80%로 가장 많았고(이중 US 200불이하가 13개업체, 65%로 대다수 차지함)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월 평균임금은 US 300불 이하가 51.9%로 가장 많으나 US 501~700불이하도 13.6%로 엔지니어의 경우 임금이 상당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섬유, 봉제, 피혁, 신발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임금은 아직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평균임금

평균임금	베트남		개성공단	
	업체수	백분율(%)	업체수	백분율(%)
US 300불 이하	42	51.9	16	80.0
301-500불 이하	25	30.9	3	15.0
501-700불 이하	11	13.6	1	5.0
701-1000불 이하	3	3.7	-	-
1000불 초과	-	-	-	-

### 4.2.4 매출액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매출액은 US 501만불-1,000만불 이하가 30.0%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매출액은 US 500만불 이하가 51.9%로 대부분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섬유·봉제, 신발, 피혁 등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으로 보인다.

<표 10> 매출액

매출액	베트남		개성공단	
	업체수	백분율(%)	업체수	백분율(%)
US 100만불 이하	22	27.2	1	5.0
101만불-500만불 이하	20	24.7	5	25.0
501만불-1,000만불 이하	15	18.5	6	30.0
1,001만불-5,000만불 이하	11	13.6	5	25.0
5,000만불 초과	13	16.0	3	15.0

### 4.2.5 베트남 진출업체의 투자만족도

투자성과 중 만족하는 부문에 대한 응답 결과, 저렴한 노동력이 6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베트남 현지시장 판매(잠재력)가 25.9%,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로 활용 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투자성과 중 만족 부문

변수	업체수	백분율(%)
	베트남 투자성과 중 가장 만족하는 부문은 무엇입니까?	
저렴한 노동력	55	67.9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로 활용	3	3.7
베트남 현지시장 판매(잠재력)	21	25.9
저렴한 입지, 원·부자재	1	1.2
안정된 노사관계, 기업규제 완화	-	-
기타	1	1.2

### 4.2.6 베트남 투자업체의 애로사항 및 위험요소

경영활동 중 애로사항은 베트남 법, 제도 미정비 및 자의적 운용이 5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프라 부족(철도, 도로, 전력 등)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투자활동 중 애로사항

애로사항	업체수	백분율(%)
	베트남 투자활동 중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원재료, 부품의 현지조달 어려움	7	8.6
베트남 법, 제도 미정비 및 자의적 운용	48	59.3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6	7.4
인프라 부족 (철도, 도로, 전력, 통신 등)	9	11.1
인허가 등 행정수속 번잡함(투명성부족 등)	9	11.1
기타(언어, 문화적 차이 등)	2	2.5

향후 위험요소에 대한 응답 결과, 제조원가의 상승(인건비, 원부자재, 세금 인상 등)이 6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정부 정책의 불안성(외국기업 규제강화 등)이 27.2%로 나타났다.

<표 13> 위험요소

위험요소		업체수	백분율 (%)
베트남 경제의 위험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조원가의 상승 (인건비, 원부자재)	55	67.9
	부동산 가격의 상승	-	-
	정부정책의 불안정성 (외국기업 규제강화 등)	22	27.2
	무역수지 적자확대 (환율불안, 자금조달애로)	3	3.7
	기타	1	1.2

#### 4.2.7 베트남 투자업체의 개성공단 및 북한경제 특구 투자 의향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북 체제조치 완화 후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할 의향에 대한 응답 결과, '없다'가 87.7%, '있다'가 12.3%로 나타났다. 투자 이유는 저렴한 노동력확보가 5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4> 북한 경제특구 투자의향

북한 경제특구 투자의향	업체수	백분율(%)
베트남 경제의 향후 위험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UN등 대북제재조치가 완화될 경우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	10
	없다	71
		87.7

#### 4.2.8 베트남 투자업체의 북한 경제특구중 투자 희망지역

북한 경제특구 투자지역은 개성공단이 7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서울과의 지리가 비교적 가깝고 값싼 노동력, 전력, 도로 등 인프라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수석 외, 2019)

<표 15> 북한 경제특구중 투자지역

변수	빈도	백분율(%)
만약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한다면 어느 지역에 투자하겠습니까?	개성공단지역	63
	황해도 해주지역	4
	원산, 금강산 지역	1
	나진, 선봉지역	3
	평양, 남포지역	8
	신의주지역	1

#### 4.2.9 개성공단 입주업체 투자만족도

투자성과 중 만족했던 부문에 대한 응답결과 저렴한 노동력 확보가 95.0%,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로 활용이 5%로 나타났다. 대체로 저렴한 노동력에 대한 만족이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6> 투자성과 중 만족하는 부문

투자만족도	업체수	백분율(%)
개성공단 투자성과중 가장 만족하는 부문은 무엇입니까?	저렴한 노동력 확보	19
	북한 내수시장 판매(집재력)	-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로 활용	1
	저렴한 입지	-
	안정된 노사관계, 기업규제 완화	-
	지리적 근접성	-

#### 4.2.10 개성공단 경영활동 중 애로사항 및 위험요소

경영활동중 애로사항은 대북제재에 따른 정치적 불안, 공단 폐쇄 등이 8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10.0%로 나타났다.

특히 (사)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2016. 2월 개성공단 폐쇄후 전수조사한 결과, 폐쇄시 계약상대방 물품 납품 미납에 따른 위약금, 1년간 영업손실, 영업권 상실 피해 등은 한푼도 보상 받지 못하는 등, 국가 손실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실질적 손해액은 정부의 피해 확인금액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커다란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표 17> 투자활동 중 애로사항

애로사항	업체수	백분율(%)
개성공단 투자활동 중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대북제재에 따른 정치적 불안, 공단폐쇄 등	17
	북한당국의 법, 제도 미정비 및 자의적 운용	1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2
	인프라 부족 (철도, 도로, 전력, 통신 등)	-
	인허가 등 행정수속 번잡 (투명성 부족)	-
	원재료, 부품의 현지조달 어려움	-

<표 18> 개성공단 철수업체 실질피해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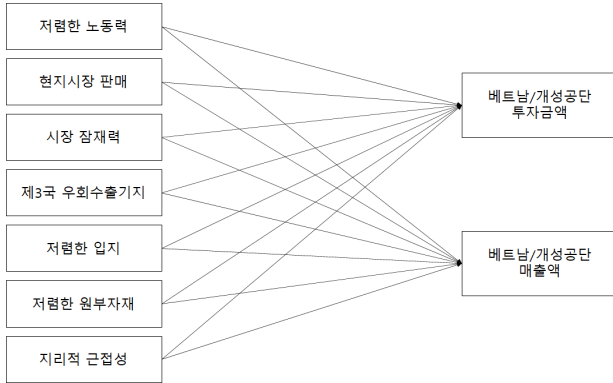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분	실질피해액 (입주업체)	정부 확인금액 (A)	지원금액 '16.5.27 (B)	추가지원금액 '17.11.10 (C)	정부확인 금액과의차이 (A-B-C)
합계	1,355,000억	7,860	4,838	660	2,362
투자자산	5,936	5,118	3,588	144	1,386
유동자산	2,452	1,968	1,249	516	203
위약금	1,484	633	-	-	633
개성현지 미수금	375	141	-	-	141
영업손실	3,147	-	-	-	-
영업권, 상실피해	2,010	-	-	-	-

자료: (사)개성공단 기업협회(2020)

### 4.3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투자기업의 특성과 현지 투자환경이 어떻게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Dunning(1980)의 절충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1>의 연구모형을 근거로 가설은 아래와같이 설정하였다.

- 가설 1: 저렴한 노동력은 투자와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현지시장 판매는 투자와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시장 잠재력은 투자와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제3국 우회수출기지는 투자와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저렴한 입지는 투자와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저렴한 원부자재는 투자와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7: 지리적 근접성은 투자와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한 변수로는 저렴한 노동력, 현지 시장판매, 시장 잠재력, 제3국 우회수출기지, 저렴한 입지조건, 저렴한 원부자재, 지리적 근접성 등 7개를 독립변수로 하고 그에 따른 투자금액 및 매출액 증감 유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 4.4 실증분석 결과

#### 4.4.1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에 앞서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변수가 0.4 이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각 변수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표 19>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분석

	회사규모	투자금액	매출액	저렴한 노동력	현지시장 판매기척	베트남 시장 잠재력	제3국 우회수출	저렴한 입지비용	저렴한 원부자재 확보	지리적 근접성
회사규모	1									
투자금액	.684**	1								
매출액	.667**	.683**	1							
저렴한 노동력	.314**	.113	-.010	1						
현지시장 판매기척	-.311**	-.052	-.158	-.400**	1					
베트남 시장 잠재력	-.181	-.163	-.067	-.208*	.473**	1				
제3국 우회수출	.287**	.207*	.063	.305**	-.249*	.171	1			
저렴한 입지비용	.217*	.135	-.060	.297**	-.194	-.064	.477**	1		
저렴한 원부자재 확보	-.028	-.089	-.123	.132	.151	.323**	.243*	.398**	1	
지리적 근접성	.295**	.086	.078	.308**	-.354**	-.250*	.168	.316**	.135	1

#### 4.4.2 베트남 투자결정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 4.4.2.1 투자환경과 투자금액 간의 영향관계

베트남 시장 잠재력( $t=-2.210, p<.05$ ),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t=2.907, p<.01$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시장 잠재력에 대한 투자결정요인 인식이 높을수록 투자금액이 감소한다는 부(-)의 영향관계,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투자금액이 증가한다는 정(+)의 영향관계를 보인다. 특히, 베트남시장 잠재력이 클수록 투자금액이 감소한다는 분석은 베트남 현지 진출 중소기업을 인터뷰한 결과 2019년말 기준 베트남 국민 1인당 GDP가 US \$ 2,715달러로써 아직까지는 내수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 매출증대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당분간은 베트남 현지 내수시장 보다는 저임금을 활용한 제3국 우회수출기지 생산거점으로 직접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 20> 투자환경이 투자금액에 미치는 영향

종속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eta$	t	p
		B	S.E.			
투자 금액	(상수)	3.495	.944		3.701	.000
	저렴한 노동력	-.147	.159	-.116	-.925	.358
	현지시장판매,개척	.076	.109	.085	.694	.490
	베트남 시장 잠재력	<b>-.252</b>	<b>.114</b>	<b>-.267</b>	<b>-2.210</b>	<b>.030*</b>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b>.308</b>	<b>.106</b>	<b>.393</b>	<b>2.907</b>	<b>.005**</b>
	저렴한 입지비용	.057	.129	.062	.440	.662
	저렴한 원,부자재 확보	-.212	.146	-.197	-1.453	.151
	지리적 근접성	.149	.182	.101	.815	.418
$R^2=.175(\text{adj. } R^2=.095), \text{DW}=1.990$						

\*p<.05, \*\*p<.01, \*\*\*p<.001

4.4.2.2 투자환경과 매출액 간의 영향관계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t=2.064, p<.05)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매출금액이 증가한다는 정(+)의 영향관계를 보인다.

<표 21> 투자환경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종속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eta$	t	p
		B	S.E.			
매출액	(상수)	4.705	1.166		4.034	.000
	저렴한 노동력	-.338	.196	-.220	-1.725	.089
	현지시장판매,개척	-.155	.135	-.143	-1.150	.254
	베트남 시장 잠재력	-.136	.141	-.119	-.968	.336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b>.271</b>	<b>.131</b>	<b>.284</b>	<b>2.064</b>	<b>.043*</b>
	저렴한 입지비용	-.182	.159	-.165	-1.145	.256
	저렴한 원,부자재 확보	-.162	.180	-.124	-.899	.372
	지리적 근접성	.246	.225	.138	1.094	.278
$R^2=.146(\text{adj. } R^2=.050), \text{DW}=2.009$						

\*p<.05, \*\*p<.01, \*\*\*p<.001

4.4.3 개성공단 투자결정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2016.2월 북핵사태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로 대부분의 영세 중소기업들이 휴·폐업 중에 있어 충분한 설문조사 모집단(응답업체수 20개업체)을 형성하지 못하여 유의미한 투자결정요인은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설문조사 경영실태 분석결과를 보면 개성공단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의 투자결정요인은 저임금을 활용한 생산비용 절감이 7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순위로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꼽고 있다. 한편 현지 시장 판매,개척, 북한 시장 잠재력,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등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자

체내의 경제적 빈곤에 따른 내수시장 미형성과 대북 경제 체제조치로 인한 해외수출 금지로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의 활용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개성공단 및 베트남 투자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특히 생산요소 비용(저렴한 인건비, 저렴한 입지조건·원부자재)과 기업 경영여건(현지시장 판매·개척,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베트남시장 잠재력)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 노동비용, 공장 입지가격, 경제규모 등 경제적 요인이외에도 현지시장 판매·개척, 제3국 우회수출 생산기지 등 경영여건이 중소기업의 직접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개성공단 및 베트남 FDI 기업들의 투자결정요인에서 생산요소 비용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개성공단 및 베트남 투자업체 공히 설문조사에서 저렴한 노동력이 각각 75%, 54.3%로 원가절감이 가장 큰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투자업체 대부분이 섬유·봉제, 신발·피혁, 전기·전자제품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대 베트남 FDI 업체의 경우 베트남 경제발전이 따른 소득증대에 힘입어 현지시장 판매·개척에도 2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의 빈곤과 소비능력 부재로 현지판매 보다는 한국의 서울 등 수도권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2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개성공단이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제3국 우회수출기지로서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2016.2 북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 경제 체제조치로 제3국과의 수출입이 봉쇄된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대북 경제 체제조치가 완화, 해제될 경우에도, 대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업체의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의향은 12.3%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번 2016년 북핵이슈로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정치적 Risk로 인한 북한 경제특구 폐쇄가능성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 또한 경제특구 폐쇄시 국가의 손실 배상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있다. 단,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대북 경제 체제조치가 완화, 해제될 경우 재입주의사가 95%에 달하여 매우 이례적이나 이는 개성공단 폐쇄후 휴·폐업 중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선택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 경제특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제도적 글로벌 규범을 갖추고 이를 잘 이행하는 것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경제발전을 이끌어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넷째, 대 베트남 직접투자업체의 경우 북한 경제특구 진출 시 투자지역으로 개성공단이 78.8%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역인 바, 이는 서울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도로, 값싼 노동력, 전력, 통신 등 인프라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북한 경제특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다(양문수, 2015). 김정은 정권 출범후 경제회생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의욕적으로 중앙급 경제특구 5개 이외에 2013. 5월 경제개발구 관련법 제정을 통해 전국 각 시도에 20개 지방 경제개발구를 설치하였으나 Infra시설 미비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지 못했다. 따라서 중국의 시장개방(심천특구의 4개지역 특구)처럼 개성공단, 라선지구, 평양·남포 가공무역구 등 Infra시설이 갖추어진 경제특구부터 집중적으로 개발한 후 점차 지방 경제특구로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북한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政經分離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중국의 경우 40년간 경제특구 및 개발구에서 정치적 이슈로 외국인 투자공단이 폐쇄된 경험은 전혀 없으며, 베트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의 경우 천안함 피격사건, 한·미 연합훈련(2013년 북한 근로자 철수로 가동중단), 북핵·미사일 시험발사 등 정치적 이슈로 2016.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정치적 Risk가 여전히 존재한다. 설문조사 결과 대북 경제 제재조치가 완화, 해제될 경우에도, 대 베트남 직접투자업체의 경우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의향이 12.3%로 매우 저조한 이유가 정치적 이슈로 북한 경제특구의 일시적 가동중단, 폐쇄가능성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으며, 또한 경제특구 폐쇄시 국가의 손실 배상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 있다.

일곱번째, 북한 경제특구에 진출코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섬유·봉제, 신발, 피혁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바 이들 기업은 대체로 규모가 작고 자본이 영세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활성화 단계부터는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금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조보현, 2006) 민간금융 참여 확대방안으로는 담보력은 취약하지만 잠재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한 금융지원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금융기관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덟번째,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관이 통일부(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금융위원회(신용보증기금, 상업은행의 금융지원) 등 정부기관이 산재해 있어 인력도 부족한 중소기업 CEO가 대북 투자 허가를 받고 공장설립 및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기관을 뛰어다녀야 하는 바 시간낭비, 돈낭비가 되고 있어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또한 북

한 경제특구에서 각종 안전사고, 세금 문제, 인력문제, 상품 반출입 등 북한 기관과 협의시 창구 단일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여러기관의 지원을 한 군데 모아서 Onestop Fullservice로 지원할 수 있는 가칭“남북경협진흥공사”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정부 기관의 중복된 업무를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로 대북 투자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

- 개성공단 기업협회(2020). *개성공단 관련 백서*, <http://www.gaesong.net/korean/portal.php>
- 고수석·임을출·강영실·박수성(2019). *남한 중소기업의 북한 7대 지역 진출전략*,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문해진(2008).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해외직접투자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베트남 통계청(2019). *외국인직접투자금액*, [www.gso.gov.vn](http://www.gso.gov.vn)
- 서울특별시(2020). *남북경협편람*,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 서대훈(2015). *북한 경제특구·개발구의 현황 및 전망: 우리기업의 진출여건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KDB 산업은행.
- 양문수(2015).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지원방안*, KIEP
- 장진(2019). *한국기업특성에 따른 대 베트남 직접투자 입지결정요인 중요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 조보현(2006). *개성공단 사업활성화를 위한 민간금융 지원방안*, 통일경제, 겨울호,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은행(2020). *북한경제자료*, 조사연구, [www.bok.or.kr](http://www.bok.or.kr).
- Kotra(2019a). *호치민무역관*,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Kotra(2019b). *하노이무역관*,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Kotra(2021). *2021 국별진출전략 베트남*,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Bank of Korea(2020). *North Korean Economic Data, Research*, [www.bok.or.kr](http://www.bok.or.kr)
- Cho, B. H.(2006). *Private finance support for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Unification Economy, Winter Issue, and Hyunda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Dunning, J. H.(1980). ‘Towards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1(1), 9-31.
-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2019). *Amou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t [www.gso.gov.vn](http://www.gso.gov.vn).
- Go, S. S., Im, H. C., Kang, Y. S., & Park, S. S.(2019). *Strategies for South Korean SMEs to enter North Korea's seven major regions*, Kyungnam University Far East Research Institute.
- IMF(2008). *Balance of payment manual*, Fifth edition 359.
- Jang, J.(2019).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Location Determinants i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Vietnam according to Korean Business Characteristics*, Doctoral Dissertation, a Graduate School of Mokwon University.
- Kemp, M. C.(1964). *The pure of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Hall*, 13-14.
- Kindlerberger. C. P.(1969). *American business abroad six lectures on direct investment*,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3.

- Knickerbocker, F. T.(1973). *Oligopolistic reaction & multinational enterprise*' Boston, MA: Division of research, MBA, Harvard Univ.
- Kotra(2019a). *Ho Chi Minh Trade Center*, www.kotra.or.kr.
- Kotra(2019b). *Hanoi Trade Center*, www.kotra.or.kr.
- Kotra(2021). *2021 Vietnam Entry Strategy*, www.kotra.or.kr.
- Macdougall, D.(1960). The benefits & costs of private investment from abroad'a theoretical approach, *The Economic record*(March), 36, 13-55.
- Moon, H. J.(2008). *A Study on factors decid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Vietnam by Korean Compani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 Rugman, A. M.(1981). *Inside the multinationals*, New York: Columbia Univ, Croom Helm.
- Seo, D. H.(2015). *Statu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 Seoul : Korea Development Bank.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2020). *a handbook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 The Corporate Association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2020). *a white paper on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http://www.gaesong.net/korean/portal.php>
- Yang, M. S.(2015). *Support Plan for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KIEP.

## **A Study on Determinants of Korean SM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Vietnam**

Heonsoo, Ch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rect investment decision factors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Vietnam, and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domestic job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inter-Korean economy.

According to the analysis, most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Vietnamese investment companies are entering the complex for the purpose of utilizing cheap labor, cheap factory locations, sales/development of local markets, and bypass export production bases in third countries. This can be divided into production-efficient investors using differences in production price such as labor costs and market-oriented investors to sell and expand the local market, which seems to be consistent with global direct investment patterns such as Nike, Apple, and Amazon. However, even if the North Korea-U.S. denuclearization talks ease or lift sanctions, Vietnamese investors' willingness to invest in the North Korea has been most burdened by the possibility of closing special economic zones due to political risks.

Last but not leas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ose willing to invest in North Korea are mostly smaller enterprises in textiles, sewing, footwear and leather industries—those that benefit from low-cost labor. Since their size is small, they need policy support in financing, especially in the early stages of their business. Even after they grow past the early stages, those without collateral would still need state guarantee letters to get financing. Thus, it is worth considering to use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to compensate commercial banks for bad loan loss or for low-interest loans for smaller SMEs.

The interviews with SMEs found that red-tape is one of the biggest difficulties they face. Thus, it is recommended that a one-stop service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cover all processes and issues related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eliminate redundancy and expediate government support for SMEs.

*KeyWord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vestment decision factors, Gaeseong Industrial Complex, Vietnam, regression analysis*

---

\* First Author, DugpyoungSLC, CO. Ltd, Management Consultant, hscho12700@naver.com